

전북 기업, 인도 시장 진출·수출 확대 주력

현지 맞춤형 지원... 도내 기업 인도 수출성과 '눈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도의 수출 성과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정밀화학기업은 자체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폴리우레탄 합성수지 촉매 및 인크 수지용 경화 촉진제 등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친환경 발포제 신제품을 선보이며 인도 현지 바이어들과의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현지 전시회 참가와 신제품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폴리를 제품으로 약 19만 6천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또한 친환경 발포제 신제품의 초도 물량도 성공적으로 선적하며, 장기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인도 수출 실적은 약 45만 달러에 달하며,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장차 분야 역시 도내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내 특장차 기업들은 인도 내 초고층 빌딩 건설과 도시 인프라 확장에 맞춰,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소방특수차 등 다양한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인도 내 30미터 이상 고소작업차 등 고성능 특장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바이어와의 온라인 상담, 공장 방문 추진, 제품 테스트 등 실질적인 수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장차 분야의 진출은 전북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인도 산업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화장품 등 K-컬처 연계 소비재 분야에서도 도내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최근 한류와 K-뷰티에 대한 인도 현

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내 화장품 기업들은 스킨케어, 헤어케어 등 다양한 제품을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현지 인증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관심바이어를 발굴하고 글로벌 파트너 사업, 시장조사, 샘플 발송 등 다각도 지원으로 유력 바이어사와 MOU 체결 및 수출 계약을 잇달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도내 화장품 기업들의 인도 수출 실적은 약 5만 2천 달러에 달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K-컬처와 K-뷰티에 대한 인도 현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2024년도 전북의 연간 수출 총액은 약 6,36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9.7%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은

6.4% 오히려 증가해 어려운 수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전북 수출을 견인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며, "특히 2025년 4월 기준 전북의 월간 수출액은 6억3,64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해외통상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가 가장 높은 전북형 수출바우처와 해외규격 인증획득 사업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대폭 증액해 공격적으로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외통상거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샘플발송 온라인 상담, 통번역, 현지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오상근기자



농촌진흥청은 최근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아르엔에티호텔에서 제7차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17개국서 꽃 피우다

농진청, 제7차 AFACI 총회 개최... 케이-농업기술 협력

농촌진흥청은 최근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아르엔에티호텔에서 제7차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총회를 개최했다. AFACI(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다.

AFACI 총회는 의장국 주최로 3년마다 열리며, 차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6대 공동의장인 네팔 농업연구위원회(NARC) 크리시나 팀시나(Krishna Timsina) 청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AFACI 총회에는 탐 나스 아디카리(Ram Nath Adhikari) 네팔 농업부 장관과 강성호 주네팔 대사대리, 공무원 코아카(KOICA) 네팔사무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탐 나스 아디카리 네팔 농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기후변화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 간 밀접한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자간 협력을 주권해 온 AFACI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아시아 15개 회원국과 AFACI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는 타지키스탄과 파키스탄 대표단 27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2개국과 농촌진흥청 간 기밀 협약식이 있었다.

이어 차기 의장단 선출, 총회 개최국 및 시기 등을 의제로 대표단 협의가 진행됐다.

/오상근기자

전북상협,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전북이 미래성장 시작점 되길"

지역경제계 입장문 내놓아... "국가 재도약에 힘 보탬 것"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계 입장문을 내놓았다.

전북상협이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내 과제와 함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AI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에 더욱 가혹하기만 하며, 특히 낙후된 전북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실정이라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낙후된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7대 전북광역공약과 시·군별 76개의 비전과 공약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공약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

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북도민 모두는 굳게 믿고 있으며, 실행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여정에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힘을 보태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상근기자

산업정보 교류 통한 R&D 성과 촉진

바이오진흥원, 태국화장품무역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일, 태국화장품무역협회(Thai Cosmetic Cluster Trade Association, 회장 Mrs. Luksupa Prathawat)와 한국-태국 기능성화장품 공동브랜드 사업화를 위한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확장 R&D 수행 주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팜·기능성화장품·기능성식품 등 관련 산업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사업 성과를 촉진하고자 추진되었다.

NDA 체결은 6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태국화장품무역협회 회장단의 전북 방문 일정 중에 이뤄졌으며, (주)리퍼터, (주)렛츠팜,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전주농생명소스재연구



원, 원광대학교 AI 및 빅데이터 융합 연구센터가 6자 협약을 통해 한-태국 간 농생명·바이오산업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스마트팜 기능성화장품, 기능성식품 산업 관련 정보 교류, △한-태국 기능성화장품 공동브랜드 사업화, △글로벌 확장형 R&D 수행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총 14세대 · 예비추천 70세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제외업종은 일반유형 주택업, 무도유형 주택업, 기타 주택업, 기타 시행 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 라온 프라이빗 퍼스티브'는 코리안신택(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가 409-10번지 일원 일대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는 확정 14세대(예비 70세대)이다.

확정추천 대상자는 전북중기청에서 사업주체(아파트 시행사)에게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이다.

예비추천 대상자는 전북중기청에서 사업주체(아파트 시행사)에게 '예비

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 3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가능하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

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 기간 이외의 가점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보유, 수상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현직장 사업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